

# “도대체 나는 누굴까?” 의문이 떠오르고 말았다

수리아의 검-Ⅱ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 이야기의 시작 - 운명과 예언 (4)

“도대체 나는 누굴까?” 이 의문이 또 떠오르고 말았다. 무니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머리를 흔들었다. 그 답을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머리만 아플 뿐이다. 하룻밤도 빼놓지 않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얻은 결론이다. 그냥 얼른 집에 가서 엄마가 타주는 따뜻한 차를 마시고 싶다. 무니는 미끄러지듯 눈길을 뛰어 내려갔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누군가와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다.

“유리 영감님 집에 다녀오나 보구나.”  
고개를 들어보니 촌장이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소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른이 묻는 말에 왜 대답을 하지 않지?”  
무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촌장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을 전혀 부자연스럽게 대하지 않았다. 무니는 오히려 그걸 불편했다. 촌장이 내민 손을 잡고 일어난 무니는 엉덩이를 툭툭 털었다. 그리고 고개를 한 번 푹 숙여 보인 후, 뒤돌아 걸어가기 시작했다. “무니야” 촌장이 그런 소년을 다시 불러 세웠다.

“무니라고 부르면 바로 돌아보는구나.”  
무니는 그게 무슨 소리냐는 표정을 지었다.  
“이 마을에서 무니는 벌써 죽었는데 말이지.”  
무니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촌장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무서운 얼굴이었다. 소년은 다시 뒤돌아보는 일 없이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차를 쫓고 있던 마야는 아들이 집 안으로 바람처럼 뛰어 들어오자 깜짝 놀라 쳐다봤다.  
“별 일 아니야. 오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바지가 좀 찢었어. 그래서 뛰어온 거야.”

무슨 일인지 눈빛으로 묻는 엄마에게 무니가 대답했다. 마야는 얼른 차를 따라서 아들에게 건네주며, 부드러운 표정으로 “오늘도 재밌었어?”라며 물어보는 시선을 보냈다.

“응. 재미있었어. 그런데 엄마, 그거 알고 있었어? 난다는 글을 읽을 줄 안대. 역시 남이 읽어주는 것보다는 자기가 읽는 게 더 재밌을 거 같기도 해. 그렇지, 엄마?”

마야는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듯 웃어 보이고는 아들 앞에 갓 구운 빵을 내주었다. “우와!” 하며 맛있게 빵을 먹는 아들의 모습을 마야는 흐뭇하게 쳐다봤다. 그런데 순간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아파왔다.

“엄마, 또 머리 아파?”  
무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마야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몇 달 전, 무니가 태어난 후부터 간혹 이렇게 두통이 심해질 때가 있었다. 이럴 때면, 이상하게 무니 위로 어떤 영상이 겹쳐보이곤 했다. 어째서일까. 어쩔런 없었다. 기억들이 돌아오는 것 같기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마야는 무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소리 없는 한숨을 내쉬었다.

유리 영감은 난다와 대화를 마친 후 집을 나와 오랜만에 집 뒷산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다. 그곳은 개인 실험실이자, 그가 아직 폐기에 넘겨진 젊은 시절 ‘탐험가 쿠상의 도서관’을 비롯해 여러 도서관에서 구해온 고대문헌들을 보관해 놓은 서재이기도 했다. 그는 일단 화로에 불을 피운 다음, 한 책상 앞에 섰다. 다른 것들과는 달리 나무로 문을 만들어 가려놓은 특이한 책상이었다. 유리 영감이 각각 태양과 달로 보이는 두 손잡이를 전후좌우로 움직이며 교차시키자 문이 열렸다. 그는 거기서 리시의 예언서를 꺼냈다. 장뵈를 보니 또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야겠군.”  
그는 책상 쪽으로 화로를 끌어당긴 후 편하게 의자에 기대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다.

무니가 태어난 지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난다는 “원래 일 년 전에 왔어야 하지만.”이라고 말하며, 생일선물로 칸타카를 주었다. 그리고 유리 영감이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익히라며 책을 선물했다. 그러나 마야는 무니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못했다. 그날은 형 무니의 생일이며 그가 죽은 지 1년하고도 이들이 지난날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지금의 무니는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슬픔 역시 아직은 너무 컸다.

무니는 생일 아침, 그런 엄마를 배려하기 위해 아침밥을 먹자마자 칸타카를 끌고 집을 나섰다. 난다와 난다네 집 뒷산에서 놀기로 약속 해왔기 때문이다. 무니는 유리 영감네 집 문을 두드렸다.

“어머, 무니 왔구나.”  
난다의 어머니 아베레였다. 모두 키가 큰 이 집안에서 키가 가장 작은 그녀는 동그란 몸매에 따뜻한 미소를 지녀서 푸근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다. 무니는 난다네 엄마를 볼 때마다 마치 갓 구운 빵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응. 난다는?”  
“아직 자고 있단다. 혹시 약속을 한 거니?”  
무니는 고개만 끄덕거렸다. 어른을 대하는 건 언제나 쪼그라들었다.

“아. 그렇구나. 오늘 네 생일이야?”  
“응.”  
무니는 시선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다. 아베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일단 들어오렴. 안 그래도 아침에 맛있는 산딸기즙을 만들어놨는데, 무니 너도 좋아하지?”  
그런데 부엌으로 앞서 걸어가던 그녀가 갑자기 뒤돌아서 무니를 바라봤다.  
“그런데 말이야. 무니 너, 언제까지 그런 말투를 쓸 거니?”

무니는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변명하듯 말했다.  
“고쳐지지 않는 걸, 요…….”  
“후후, 하다보면 될 걸. 하지만 우리 난다하고만 놀면 더 고쳐지지 않을 거야. 그녀석도 이제 좀 말투도 어른스럽게 고치고 그래야 할 텐데. 아무튼 무니 너, 다른 친구들하고도 가끔은 어울리고 있는 거지?”  
이 질문에도 무니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다.



삽화 · 김홍인

아베레는 자신이 아이에게 괜한 말을 했나 싶어 입을 다물었다. 대신 우울한 표정이 된 무니의 코앞에 달콤한 산딸기즙을 들이 밀었다. 무니는 조금 망설이더니, 더 참을 수 없다는 듯 컵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단숨에 다 마셔버렸다. 우물쭈문 기분마저 날려버릴 만큼 달콤한 맛이였다. 엄마한테도 가져다주면 좋아할 텐데. 그런 무니의 표정을 눈치 챈 아베레가 말했다.  
“맛있지? 난다네 아빠가 누프르산에서 따온 거란다. 거기서 자란 산딸기가 제일 맛있지. 나중에 집에 갈 때 들리면, 좀 싸줄 테니까. 그나저나 난다는 친구랑 약속을 해놓고 아직도 안 일어나니.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이 아침마가 깨워주마.”  
아베레는 일부러 우당탕탕 발소리를 내며 난다의 방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난다가 눈을 뜨자마자, 함께 집을 뛰쳐나와 뒷산으로 뛰어올라갔다. 칸타카도 좋은지 가장 먼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 봐. 정말 맑다.”  
난다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친구의 말에 무니도 하늘을 바라봤다. 그야말로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이었다.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졌다.  
“뭔가 이상해. 처음 보는 거 같아.”  
“응? 뭐?”  
“하늘 말이야. 이런 하늘을 오늘 처음 보는 거 같아.”  
“나도 처음인데, 뭐.”  
무니가 난다를 바라봤다. 친구는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원래 모든 일은 새로운 일이거든. 내가 어제의 내가 아니고, 이 하늘도 어제의 하늘이 아닌 거라고.”  
무니는 피식 웃고 말았다. 유리 영감이 언젠가 그들에게 해줬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난다도 결국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 진짜. 그런데 할아버지 땀에 귀찮아 죽겠어.”  
“유리 영감이 왜?”  
“요즘에는 고대어 공부까지 시키신다고 했잖아. 매일매일 숙제야. 내가 그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가. 그래서 오늘도 늦잠을 잔 거라고.”  
“숙제? 그게 뭐야?”  
“그게,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고대어를 배운 다음에, 나중에 혼자서 공부를 하고 할아버지한테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지. 종이나 책 같은 데 적어서,

아님 외운 걸 들려주거 나.”  
난다의 말에 무니의 표정이 좀 어두워졌다.  
“그럼 오늘도 일찍 가봐야 해?”  
“아니. 오늘 공부는 저녁에 하기로 했거든.”  
“그럼 숙제는?”  
“몰라. 될 대로 되겠지. 당장 오늘까지는 아니니까, 내일하던가.”  
“넌 뭐든지 내일 한다고 하더라.”  
“야. 너 내일이 왜 있다고 생각해?”  
무니는 잘 모르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러자 난다가 씨익 웃으며 말했다.  
“오늘 할 일, 내일 하라고.”  
난다는 무니의 황당한 표정을 봤는지, 못 봤는지 그냥 다시 뒤로 벌렁 드러누우며 계속 말했다.  
“근데 너도 망심할 때가 아니야. 내 생각엔 말이야. 할아버지가 너도 곧 공부하러 오라고 하실 거 같아.”  
“진짜?”  
무니는 깜짝 놀라며 난다를 쳐다봤다.  
“할아버지가 선물로 너한테 주신 책, 그거 나 공부 처음 시작할 때 본 책이거든.”  
“아, 이럴 수가!”  
무니는 난다의 말에 머릴 감싸 쥐었다.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77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            |   |
|------------|---|
| 기본과정 (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향선축원, 불공시식 등 |
| 중급과정 (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 작법반 (1년)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
| 신행과정 (1년)  |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특수작법 (1년)  |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1년 4월 14일까지

◆개강일시 : 2011년 4월 15일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급 교육과정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친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 심인불교대학 <心印佛敎大學> 2011년 제1기 심인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근본사상(佛敎根本思想)과 대승보살(大乘菩薩)의 실천수행(實踐修行)을 기본(基本)으로 하여 즉신성불(卽身成佛)을 대원(大願)하는 ‘심인불교대학’ 법우(法友)를 모집합니다.

| 모집과정 | 제가불자, 법사, 비구, 비구니(승려)   |
|------|---|
| 교육기간 | ● 입학 : 2011년 4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br>● 졸업 : 2011년 10월 2일 (일요일) 6개월 과정  |
| 교육과목 | ■ 불교(佛敎)란 : 근본불교(根本佛敎)의 기본사상(基本思想)<br>■ 밀교(密敎)의 삼대사상(三大思想) - <육대(六代), 사만(四曼), 삼밀(三密)><br>■ 만다라(曼荼羅) <화엄(華嚴)사상(思想)><br><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荼羅), 태장계만다라(胎藏界曼荼羅)><br><우리나라 만다라, 화엄신중, 감로만다라(명화)><br>○ 불신론(佛身論) = 밀교의 삼륜신(三輪身), 현교의(三身佛)<br>○ 진언과 수행(眞言과 修行) = 삼밀정진(三密精進)<br>○ 진언염송(眞言念誦) = 육자대명왕진언(음마니반메홀) |
| 특별과목 | ● 공사상(空思想) = 공이란? ● 운명과 숙명(運命과 宿命)이란?<br>● 명상법(冥想法) = 위빠사나 수행법, 잠선수행법<br>● 밀교(密敎)의 성불론(成佛論)과 현교(顯敎)의 성불론(成佛論)   |
| 교육시간 | ● 매주 : 일요일 오후 2시부터 ~ 오후 4시까지 2시간  |
| 교육장소 | ● 무애정사 <심인불교대학> ● 법사과정 : 대학졸업자  |

※ 수강료 교재비 무료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 심인불교대학 무애정사

문의 : 031)675-3837, 팩스 031)675-3827, H·P 011-9356-3653 (범운합장)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688-7번지 삼현빌딩 3층